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남원 설립 확정을 환영하며, 지역 공공의료의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오늘 전북지역 상공인 모두는 180만 도민과 함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국립의전원)의 남원 설립 확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인구 감소와 의료 공백으로 위기를 겪는 지방에 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매우 뜻깊은 첫걸음입니다.
- 특히 남원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전환하고 약 500병상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은 국립의전원의 지역·공공의료 임상교육 기반과 지역 거점병원 기능을 함께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큼니다.
- 남원은 전북 동부권은 물론 경남·경북 서부권까지 아우르는 광역 의료 거점으로서 우수한 접근성과 확장성을 갖춘 지역입니다. 국립의전원과 지역 의료기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전북을 넘어 인접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 이제 중요한 것은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이 실질적인 지역 공공의료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일입니다. 남원 중심의 교육과정과 지역 내 임상 실습·수련 기반을 충실히 갖추고, 다양한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방의료의 현실을 직접 배우고 경험하는 교육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이에 전북지역 상공인들은 국립의전원이 남원이라는 든든한 기반 위에서 전국의 의료 취약지를 살리는 우수한 의료인력의 요람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 10월 1일

전북지역상공회의소협의회

[전주·익산·군산·전북서남·김제상공회의소]